

청일전쟁 전황(戰況)과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정책

석화정*

1. 머리말
2. 일본의 현상(Status Quo) 변경 시도와 열강의 상호견제
3.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Korea)’ 및 ‘보호령(seperate Protectorate)’안과 일본의 개전
4. 한반도에서의 패전과 리홍장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
5. 중국 본토로의 전선확대와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independence of Korea guaranteed by Powers)’
6. 맺음말

1. 머리말

청일전쟁기 ‘조선의 독립(independence of Korea)’문제는, 조선이 주권국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넘어, 전황(戰況)의 추이와 전쟁 당

* 공군사관학교 인문학과 역사교수

사국과 열강의 이해(利害)에 따라 연동한 국제적 이슈였다.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대청전쟁을 수행하던 일본이 한반도 독점에 대한 열강의 견제를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조선의 독립’이 국제문제였기 때문이다.¹⁾

‘조선의 독립’이란 명분 아래 한반도 독점 야욕을 키워왔던 일본은 강화도조약(1876) 제1조에서 조선이 ‘자주국(自主之邦)’임을 선언하여 청의 종주권에 도전했고,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강화조약(1895) 제1조에서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이 독립국’임을 인정케 만들었다. 그 점에서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한 청일전쟁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대외침략적 성격에 있었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주권선(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이익선(한국)까지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같은 일본 군부의 전략에 진정한 의미의 ‘조선의 독립’은 애당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²⁾

‘조선의 독립’문제는 ‘종번(宗藩)관계 철폐’와 함께 전황에 따라 일본과 청국의 편익에 의해 제기되었다.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던 일본에게 청국의 대한(對韓)종주권 철폐와 ‘조선의 독립’ 문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이슈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화이 질서를 고수하려던

1) 영국의 현지외교관들은 일본의 전쟁의도와 목적을 간파하고 있었다. 드러먼드(W.V. Drummond) 상해주재 영국영사의 1894년 6월 15일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개전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를 차지함은 물론 중국 본토를 공격하여 복건이나 타이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No.313, O'Conor to Kimberley, 1894.6.24, Inclosure 2 in No.313, Memorandum by Mr. Drummond, 1894.6.15., *Anglo-American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edited by Park Il-Keun(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83)(이하 *British Diplomatic Archives*)로 약함), pp.144-145; No.405, O'Conor to Kimberley, Inclosure 2 in 405, 1894.6.26, BDA, pp.240-242.

2) 고야쓰 노부쿠니, 「민비암살이란 무엇인가」 『역사학보』 제190호(2006. 7); 森山茂徳, 「청일전쟁 중 일본 군부의 대한 전략」,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195.

청조는 청일전쟁기 내내 ‘중변’ 관계의 철퇴와 ‘조선의 독립’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청국은 한반도에서 패하고 난 뒤에 ‘조선의 독립’을 제기했지만, 일본이 원하던 의미의 ‘조선의 독립’은 아니었다.

이 논문은 ‘조선의 독립’문제가 전황에 따라, 그리고 청일 양국의 입장과 열강의 중재안에서 각각 다르게 접근되었던 사실에 주목해 본 것이다.³⁾ 즉 ‘조선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청·일과 열강의 중재안을 재평가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열강의 이견이 곧 전쟁을 장기화시킨 요인이자, 열강의 중재가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장은 일본이 조기 개전을 결정하고 번복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열강의 무관심이 곧 열강의 상호견제와 연결된 것이었음을 제기하였다. 3장은 현상(現狀)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김벌리외상이 제기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Korea)’안이 일본의 개전과정과 어떻게 연동되었는지를 재평가하였다. 4장은 한반도에서의 패전 이후 리홍장(李鴻章)북양대신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의 의미를 통해 전쟁이 장기화하고 강화가 지연된 청측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5장에서는 중국본토에서 일본의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제기된 김벌리외상의 ‘열강보장하의 조선의 독립’안이 실패로 돌아간 과정이 열강의 동아시아 정책이 반영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3) 청일전쟁기 조선측의 국가, 자주개념 및 독립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현광호, 유길준의 ‘한국독립’ 인식, 『인문연구』 제55호(2008.12), 김성배, 갑오개혁기 조선의 국가·자주개념의 변화: 김윤식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4권(2) (2015.2).

2. 일본의 현상(Status Quo) 변경 시도와 열강의 상호 견제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일 양국의 시각차는 개전 이전부터 뚜렷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제의한 ‘공동 조선 내정 개혁’안을 청국은 한 번도 수락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청국이 제의한 ‘양군 동시 선철병’안을 끝까지 수락하지 않았다.

일본은 전주화약(6.11) 이후 한반도에서 외국군대의 주둔 명분이 사라진 뒤에도 철병을 거부하고, 청일 양국에 의한 <공동 조선 내정개혁>안을 청국에 제안했다(6.16). 다음 날,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주한일본공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청국과의 전쟁을 개시하기 위해 ‘중변’ 문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무츠 무네미쓰(陸奥宗光) 외상에 건의했다(6.17).⁴⁾ 이는 천진협약(리홍장-이토 히로부미, 1885) 이래 열강의 눈을 의식해 청국의 대한중주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온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했다.

청일 양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조선과 청국은 각각 영국, 러시아, 미국에게 잇달아 중재를 요청했다. 리홍장은 청국 조정의 이름으로 카씨니(Count Cassini)청국주재 러시아공사에게 청일 양군의 동시

4) 『日本外交文書』 27-2, no.559, pp.217-19; 청일 개전에 대해서는 오오토리공사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구선희, 『한국군대사연구』, 2006)와 오오토리공사와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등 주한공사관원들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Mori Mayuko,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Issue of Suzerain-Vassal as Viewed from the Standpoint of Chose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7, No.1, 2012), 이토와 무츠의 입장이 개전과정에서 관철되는 측면으로 바라본 최석완의 연구(일본정부와 청일전쟁 개전과정, 『일본역사연구』 29집(2009), 고종이 청국에 개입을 요청한 다음 날(1894.6.2) 각의에서 신속한 파병결정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일본이 청국과의 전쟁을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왔다는 증거라고 본 새러 페인의 연구(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14) 참조.

철병을 위한 거중조정(good offices)을 요청하고(6.20), 다음 날 일본의 <공동 조선 내정개혁>안을 거부했다(6.21).⁵⁾ 청국은 기존의 중변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으므로 공동 내정개혁 즉 일본과 한반도에 대한 공동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⁶⁾ 리홍장은 다음 날 기르스(M.N.Giers) 러시아외상에게도 중재를 요청했다(6.22).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인 6월 22일에 무츠외상은 오오토리공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개전의 구실을 찾으라”⁷⁾고 훈령했다. 6월 21일과 22일의 일본 각의가 <공동 조선 재정개혁>안에 대한 청국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내부적으로 조기 개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서울의 청국공사관 철수와 일본의 보호령(protectorate) 인정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조선왕에게 보냈다.⁸⁾

한편, 청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기르스외상은 6월 25일 두 나라의 <무력 충돌에 반대하며> <양군의 선공동 철병과 교섭을 포함한 분쟁 해결>을 히트로보(Mikhail Hitrovo)주일 러시아공사를 통해 무츠 외상에게 권고했다.⁹⁾ 기르스외상은 양군 철수를 중재해달라는 조선의 요청도 황제에게 상주했다(6.28).¹⁰⁾ 러시아가 청국과 조선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영국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¹¹⁾

-
- 5) No.16, Cassini to Giers, 1894.6.10(22), *KA, CSPSR*, Vol.XVII, No.3, pp.494-495.
 6) No.19, Cassini to Giers, 1894.6.12.(24), B.G. Waber & S.R.Dimant(ed.), *Russian Documents Relating to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trans., from Krasny Arkhiv, Vol.L-LI, pp.3-63, *Chinese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Review*, Vol.XVIII, No.3, Oct., 1932 (이하 *KA, CSPSR*로 약함), p.496.
 7) 최문형, 국제관계를 통해 본 청일 개전의 동인과 경위 <역사학보> 제99·100합집 (1983), p.244.
 8) No.31, Cassini to Giers, *KA, CSPSR*, Vol.XVII, No.3, pp.505-506.
 9) No.302, Paget(Tokyo) to Kimberley, 1894.7.8, Inclosure in No.302, *BDA*, pp.134-136; Hitrovo to Giers, 1894.6.13(25), No.21, *KA, CSPSR*, Vol.17, No.3, pp.497-498.
 10) No.23, The Most Devoted Note of Giers, 1894.6.16.(28), *KA, CSPSR*, Vol.XVII, No.3, pp.498-499.
 11) No.15, Cassini to Giers, 1894.6.10.(22), *KA, CSPSR*, Vol.XVII, No.3, pp.493-494.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전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분구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제의한 <무력 충돌 반대>와 <양국의 선 공동철병>안에 대해 영국의 김벌리외상은 패짓공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보호(Protection)>에 대해 자신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7.25).¹²⁾ 독일, 영국, 프랑스의 현지 외교관들은 지지 의사를 표했다.¹³⁾ 당시 현지 외교관들의 한반도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자국 정부의 정책노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강의 일치된 반응은 분명 효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6월 30일에 히트로보 주일 러시아 공사는 ‘청일 양군의 동시철병에 어떤 장애를 개입시킨다면, 일본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구상각서(verbal note)를 전달하며 무츠외상을 한층 압박했다.¹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수상은 히트로보와의 장시간 회동에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정개혁을 수행하겠다는 보장을 조선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청군과 공동으로 철병하겠다고,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지키는 것에 일본의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¹⁵⁾ 러시아의 제안에 반발하면서도 러·청이 연합할 지도 모르고, 열강의 현지 외교관들이 무력 충돌에 반대하며 청일 양군의 공동철병에 한 목소리를 내자, 일본은 7월 1일의 임시각의에서 청과의 조기 개전방침을 철회했다.

러시아의 압박 못지않게 영국의 압력도 일본의 조기 개전 방침을

12)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13) No.18, Sill to Gresham(Secretary of State), 1894.6.25, *U.S. Foreign Relations of 1894*, Appendix I, pp.22-24, *Anglo-American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이하 *Papers of American Foreign Relations*)로 약함), p.1017.

14) No.28, Hitrovo to Giers, 1894.6.19.(7.1), KA, CSPSR, Vol.XVII, No.3, pp.503-504.

15) No.29, Hitorovo to Giers, 1894. 6.19(7.1), KA, CSPSR, Vol.XVII, No.3, p.504.

철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킴벌리(Earl of Kimberley, John Wodehouse)외상은 청일 갈등에서 러시아만 이득을 얻게 되지 않을까를 지속적으로 우려했다.¹⁶⁾ 이에 패짓(R. Paget)주일 영국대리 공사는 무츠외상을 방문하여, ‘중주권문제는 제기하지 말고, 조선의 개혁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6.30). 영국에게 ‘조선의 독립’이란 한반도가 러시아의 수중에 장악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기존의 청국의 대한(對韓)중주권을 인정하도록 사실상 일본에 압력을 넣은 것이다. 러시아와 영국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조선의 독립’에 변화가 오는 것을 서로 경계하며 일본의 현상 변경에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1일 이후인 7월 12일에 청과의 전쟁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 국면에서도 러시아와 영국의 상호견제 및 그에 따른 정책 변화가 일본의 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을 살펴보자.

개전방침을 철회한 다음 날,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거론했다. 리홍장이 청일 〈양군의 선 공동철폐〉(기르스외상이 6월 25일에 제안한)을 일본에게 제안한데 대한 답신에서였다(7.2). 이 때 일본은 ‘조선의 독립과 평화 확립’에 군대 주둔의 목적이 있으므로 동시철폐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행동은 침략적 목적이 아니며, 조선의 평화가 회복 되는대로 즉시 철폐할 것이라는 것이었다.¹⁷⁾

리홍장의 〈양군의 선 공동철폐〉안을 일본이 거절하자, 같은 날 기르스외상은 즉각 카시니 주청러시아공사에게 철폐 권고가 ‘신중한 중립(Guarded Neutrality)’을 크게 벗어나선 안 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7.2).¹⁸⁾ 러시아가 청국 편을 들어 일본을 심하게 압박할

16) No.21, Kimberley to Mr. Paget, 1894.6.28, *BDA*, p.13.

17) No.39, Hitrovo to Giers, 1894.6.24(7.6), *KA, CSPSR*, Vol.XVII, No.3, pp.509-510.

경우, 영국의 적대적인 행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영·청의 접근도 막아야 하고, 무엇보다 일본의 배후에 영국이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에 기르스외상은 카씨니공사에게 일본군의 철병을 ‘우호적인 조언(friendly advice)의 형태로’ 하라고 훈령했다(7.7).¹⁹⁾ 그리고 청국이 영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우호적인 형식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청국에 전달하라고 훈령한 뒤에(7.8)²⁰⁾, 일본에 ‘청일 양국이 협의를 개시하기를 희망한다’는 ‘우호적인 조언’을 표명했다(7.10).²¹⁾ 일본은 러시아의 7월 10일의 새 제안에 기존의 <무력충돌 반대>와 <양군의 선 공동철병> 조건은 빠진 채, ‘청일 양국이 협의를 개시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만 언급된 것에 주목했다.

러시아가 6월 25일의 강경한 중재안과 달리 7월 10일에 한층 누그러진 입장을 표명하게 된 데는 그 사이에 영국의 킴벌리외상이 <공동 개입>을 제의했기 때문이었다. 7월 7일에 킴벌리외상은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정부에 ‘공동 개입(common intervention)’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었다. 킴벌리외상은 러시아의 단독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영국을 배제한 채 청국이 러·일과 어떤 비밀 협약에 도달하지 않을까를 경계했다.²²⁾

18) 김지환, 「청일전쟁기 청국 외교노선의 변화」 『동학연구』 제19집(2005), p.121.

19) No.40, Giers to Cassini, No.40, 1894.6.25.(7.7), *KA, CSPSR*, Vol.XVII, No.3, p.510.

20) No.43, The Most Devoted Note of Giers, 1894.6.26(7.8), *KA, CSPSR*, Vol.XVII, No.3, p.512.

21) No.48, Giers to Cassini, 1894.6.28.(7.10), *KA, CSPSR*, Vol.XVII, No.3, p.514.

22) No.46, Kimberley to O'Conor, 1894.7.7, *BDA*, p.24; Kimberley to Paget, 1894.7.7, No.47, *BDA*, p.24; No.328, O'Conor to Kimberley, 1894.7.5, *BDA*, p.172; No.303, Paget to Kimberley, 1894.7.10, *BDA*, pp.136-137; No.328, O'Conor to Kimberley, 1894.7.5, *BDA*, p.172; No.335, Kimberley to Paget, 1894.8.20, *BDA*, p.181.

영국이 공동 개입에 가담할 것인지를 문의했을 때, 프랑스의 아노또(Gabriel Hanotaux)외상은 조선에 인접한 열강(a Power limitrophe)인 러시아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러시아와 함께 공동행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고,²³⁾ 독일은 일반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불개입을 표명하면서도 한미조약(1882)이래 표명해왔던 ‘조선의 독립과 주권(Corea’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존중을 내세워, ‘우호적인 개입일지라도 타 열강과 함께 개입할 수 없다’²⁴⁾고 선을 그었다(7.8). 다음 날 미국정부는 던(Edwin Dun)주일공사를 통해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을 일본에 촉구했다(7.9).

일본은 미국이 표방한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이 자국이 제시한 <조선의 독립과 평화 확립>의 명분을 지지해준 것임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행동이 영토 점령과 같은 침략적 목적이 아니며 조선에서 평화가 회복되는 대로 곧 철병할 것이지만, 일본군의 철수가 곧 동양의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²⁵⁾ 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던 던(Dun)공사는 이 내용을 미국정부에 그대로 보고했다.

무츠외상이, ‘베이징에서의 영국의 중재가 실패한 이상, 일체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오오토리 공사에게 하달한 것이 이 때이다.²⁶⁾ 조기 개전 방침을 철회한 지 11일 만에 군사력 충돌 방침을 재설정한 일본의 개전 결정은 이처

23) No.50, Mohrenheim to Hanotaux, 1894. 6.29(7.11), KA, *CSPSR*, Vol.XVII, No.4(Jan.,1934), pp.632-633; 청일전쟁기 프랑스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Ge Fuping, *France and the First Sino-Japanese War, 1894-1895*, *Social Sciences in China*, Vol.36, No.4, 2015, pp.138-163 참조.

24) No.28, Mr.Gresham to Bayard(the United States’ Minister to Tokio), 1894.7.20, *PAFR* pp.1027-1029.

25) F(oreign). O(ffice). 405-60, Paget to Kimberley, No.28, Jul., 14, 1894.

26) 陸奥宗光, 김태욱 역, 『蹇蹇錄』(명륜당, 1988), p.56, 112.

럼 ‘조선의 독립’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 표명과, 러시아로부터의 압력이 감소하고, 영국의 〈공동개입〉제약이 실패했다는 국제관계를 감안한 결정이었다.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 한 일본의 개전 결정이 얼마나 자국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3.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점령(joint occupation of Korea)’ 및 ‘보호령(seperate Protectorate)’안과 일본의 개전

7월 7일 김벌리외상에 의한 열강의 〈공동 개입〉 제약이 일본의 개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무츠 외상은 자신의 회고록(『蹇蹇錄』)에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으로 전단을 열기 하루 전인 7월 22일에 김벌리외상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을 제안했다는 기록을 남겼다.²⁷⁾ 무츠는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코너 주청 영국공사에게 문의했으며, 자신이 이 제안을 접했을 때는 이미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과 동시에 개전했으므로 이 같은 협의에 응할 수 없었다²⁸⁾고 기록했다. 무츠 회고록의 이 언급 때문에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은 정작 일본의 개전과 ‘조선의 독립’문제에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영국외교문서에 따르면, 김벌리외상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을 제의한 것은 7월 22일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열강 사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사안이었다. 김벌리는 7월 7일의 열강의 〈공동

27) 『蹇蹇錄』, p.77.

28) 『蹇蹇錄』, pp.77-78.

개입〉 제의에 대한 열강의 반응이 미미하고, 청일 양군의 철병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자, 청일 양국 및 러시아측에 자신의 안을 재차 촉구했다(7.14).²⁹⁾ 이 때 김벌리는 철병협상의 첫 단계로서 청일 양군이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따로 점령하는 〈한반도 공동 점령(joint occupation of Korea)〉을 제시했다.³⁰⁾ 열강의 답신이 7월 14일부터 즉각적으로 답지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 공동점령〉안은 7월 7일과 14일 사이에 제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청일 양군의 동시 철병을 주장해온 청국 조정은 한성과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북부에서만 청군의 주둔을 의미하는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수락할 수 없었다(7.14).³¹⁾ 리홍장은 조선 내 공동위원회의 설치안은 수용하더라도, 종주권 문제는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³²⁾ 그리고 러시아측에는 일본이 서울에서 철수하여 부산에 주둔한다는 조건하에 평양을 잠정적으로 청군의 군사점령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³³⁾

러시아도 청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³⁴⁾ 기르스외상은 김벌리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황제에 상주하고(7.18),³⁵⁾ 같은 날 동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29) No.80, Kimberley to O'Conor, 1894.7.14, *BDA*, p.40; Kimberley to O'Conor, 1894.7.16, No.96, No.97, *BDA*, p.49.

30)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31) No.96, Kimberley to O'Conor, 1894.7.14, *BDA*, p.49.

32) F.O. 405-60, No.50, O'Conor to Kimberley, Jul., 18, 1894.

33) No.183, Kimberley to O'Conor, 1894.7.28, *BDA*, pp.81-82; No.186, O'Conor to Kimberley, 1894.7.26, *BDA*, p.83.

34) No.290, Kimberley to O'Conor, 1894.8.1., *BDA*, pp.126-127; 러시아 '노보스티(Novosti)'지 7월 28일(8월 9일)자는, 한반도가 청국, 일본, 영국 수중에 떨어졌을 때, 남우수리스크, 시베리아철도,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 개탄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점에서 청일간의 충돌은 동 시베리아(Eastern Siberia)와 러시아외교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No.295, Lascelles to Kimberley, Inclosure in No.295, *BDA*, pp.129-130).

35) No.63, Memorandum to the Emperor by Giers, 1894.7.6(18) *KA*, *CSPSR*, Vol.XVII, No.4, pp.640-641; Sir F.Lascelles to Kimberley, 1894.7.23, *BDA*,

(Kapnist)는 청일 양군이 철수할 때까지 영흥만(Port Lazareff)을 일시 점령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다.³⁶⁾ 러시아 역시 ‘일본군이 서울에서 철수하기만 한다면’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을 수용하겠다는 청국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카씨니 베이징주재 러시아 공사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³⁷⁾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청국이 이 안을 수용토록 하겠다며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관해 영국과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7.22). 말하자면, 영국과 러시아가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사전 합의한 뒤에, 프랑스와 독일에 같은 내용의 제의를 보낸 것이 7월 22일인 것이다.³⁸⁾ 이와 함께, 7월 22일에 영국과 러시아가 청일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전신을 교환한 것³⁹⁾으로 보아,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은 일본의 개전을 막으려는 영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시도였다.

아오키 슈조(青木周藏) 주독 및 주영 일본공사도 7월 14일에 즉각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는 최고의 플랜은 김벌리의 안대로 일본은 한반도 남부를, 청국은 북부를 점령함으로써 충돌의 모든 위험을 피하고 공동 조선 내정개혁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김벌리외상에게 피력했다.⁴⁰⁾ 아오키공사의 언급은 마치 김벌리외상의 〈한반도 공동 점령〉안에 〈공동 조선 내정개혁〉이라는 기존의 일본측 요구를 합해놓은 듯하다. 7월 22일에 무츠외상은 김벌리외상의 ‘조

p.65; No.169, O'Conor to Kimberley, 1894.7.25, *BDA*, pp.76-77.

36) No.66, Note of Kapnist, 1894.7.7(18), *KA, CSPSR*, Vol.XVII, No.4, pp.643-644.

37) No.248, Phipps to Kimberley, 1894.8.2, *BDA*, pp.109-110; No.258, F.Lascelles(St. Petersburg) to Kimberley, 1894.7.30, *BDA*, pp.113-114.

38) No.63, Memorandum to the Emperor by Giers, 1894.7.6(18), *KA, CSPSR*, Vol.XVII, No.4, p.641. 각주25.

39) No.70, Reding(Acting Consul at Shanghai) to Kapnist, 1894.7.10(22), *KA, CSPSR*, Vol.XVII, No.4, p.646.

40) No. 82, Kimberley to Paget, 1894.7.14, *BDA*, p.41.

선분할점령’에 관해 청국이 동의하는 지 여부를 문의하라고 주청고무라공사에게 훈령했다.⁴¹⁾ 같은 날, 아오키공사는 무츠외상에게, 청일 양국의 〈보호(Protection)〉에 대한 킴벌리외상의 안에 청국 정부가 동의하는 지 여부를 언급하였다.⁴²⁾ 이를 통해 볼 때, 무츠외상은 7월 22일 전에 이미 영국측으로부터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안을 전달받은 것이 분명하다.

킴벌리외상은 패짓공사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보호(Protection)〉에 대해 자신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7.25).⁴³⁾ 그러나 아오키공사가 킴벌리외상에게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보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아, 킴벌리외상은 일본측에 〈한반도 공동 점령〉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⁴⁴⁾ 결국 7월 12일의 일본의 최종적인 개전 결정은 7월 7일과 14일 사이에 영국이 제안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개전 결정과정에서 영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이 이루어졌다. 킴벌리외상과 아오키 공사는 기존의 두 나라 사이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7.12), 4일 뒤에 통상항해조약을 조인했다(7.16). ‘아오키-킴벌리 조약 (Aoki-Kimberley Treaty)’의 체결과정에서 영국은 자국의 강남 무기 제작소가 있는 상해를 공격하지 않으며 ‘상해 중립화’의 보장을 일본에 요구했다(7.22).⁴⁵⁾ 일본 내각은 상해가 영국 이익의 중심지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전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7.24).⁴⁶⁾ 그러므로

41) 『日本外交文書』, 27-2, No.674, 1894.7.22. pp.315-316.

42) 『日本外交文書』, 27-2, No.676, 1894.7.22. p.317.

43) No.165, Kimberley to Paget, 1894.7.25, *BDA*, p.74.

44) No.162, Paget to Kimberley, 1894.7.24, *BDA*, p.73.

45) No.134, Kimberley to Paget, 1894.7.22, *BDA*, pp.62-63; No.135, Kimberley to Consul-General Hannen, 1894.7.22, *BDA*, p.63.

46) 『蹇蹇錄』, p.76-77.

일본은 영국측이 제시한 〈한반도의 공동 점령〉 및 〈보호령〉 제의를 통해 영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영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한 뒤에 개전을 도발한 것이다.

김벌리 외상이 ‘아오키-김벌리조약이 일본에게 청국의 대병을 패주시킨 것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오코너(Nicholas R. O'Connor) 주청 영국공사도 ‘영국이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조인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일본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도 될지 모른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⁴⁷⁾고 토로했을 정도였다.

이에 대해 영국학자들은 개전 이전부터 전후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에 이르기까지 영국이 일관되게 불개입정책을 유지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안 니시(Ian Nish) 교수는, 러시아의 개입 우려가 청일전쟁 이전 영국의 최대의 관심사였고, 청국과의 최대 교역국인 영국은 청제국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청국의 심각한 패배를 막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보았다.⁴⁸⁾ 즉 영국의 입장에서 청일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었고, 영국 외교에서 그리 관심을 끈 사안도 아니었지만, 청국과의 무역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청국과의 대외 교역량이 3%에 불과했지만, 청국의 전체 무역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서 열강 가운데 청국에 가장 압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⁴⁹⁾

그러나 영국이 ‘불필요한 전쟁’에 ‘불개입’ 입장이었다고는 하나, 큰 틀에서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의 친일적 입장이 일본의 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영국의 청일 양

47) Ian Nish(1), 「청일전쟁과 영국」, 『청일전쟁의 재조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p.209.

48) Ian Nish(1), 위의 논문.

49) Kimberley to Rosebery, 1895.4.6, Sneh Mahazan, *British Foreign Policy 1874-1914, The Role of India* (Routledge, 2002), p.113.

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안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의 전쟁의 전개와 목적이 ‘조선의 독립’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에 이어 청일의 공동 보호령이 영국과 일본 사이에 논의되었던 사실은, ‘조선의 독립’이 당시 영국의 제의에 의해 크게 위협받았음을 말해준다.

결국 영·러 양국의 상호 견제, 열강의 〈공동 개입〉,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이라는 영국의 중재 제의, 그리고 〈아오키-킴벌리 조약〉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일의 정치적·전략적 공감대가 일본의 개전 결심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조선의 독립’이란 일본에는 개전 명분이었고, 영국에는 러시아의 단독 개입을 막는 방패막이었다. 그 점에서 영국의 중재안들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영국측 의도를 일본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준 셈이었다.

더욱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한 그레삼(Walter Q. Gresham)미 국무장관의 ‘호의적 중립’ 표방은 개전을 결심한 일본에 결정적인 개전 촉진제의 역할을 했다. 즉 미국은 ‘조선과 타열강(청·일 의미-필자)에 대해 엄정중립(impartial neutrality)을 견지해야 하고....오직 우호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어떤 경우에도 다른 열강(유럽 열강-필자)과의 공동개입을 거부한다(7.20)는 것이었다.⁵⁰⁾ 미국의 일관된 친일적 입장은, 청국에서의 영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더 많은 중국 시장의 문호를 열고자 한 측면이 강했다.⁵¹⁾ 미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위해 영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독립’은 조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영·러·미의 상호견제의 희생물로 전락했고, 일본은 열강이 ‘조선의 독립’을 빌미로 상호

50) No.28, Mr.Gresham to Mr. Bayard, July 20, 1894, *PAFR*, pp.1027-1029.

51) Cui Zhihai, *The Unites States and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Social Sciences in China*, Vol.36, No.4, 164-192(2015).

견제하는 국제관계를 간파하고 개전을 단행한 것이다.

4. 한반도에서의 패전과 리홍장이 제기한 ‘조선의 독립’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 치안,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일본군은 조선왕, 청국공사관, 모든 전신선을 장악하고, 서울을 점령했다고 천명한 뒤, 청군 진지로 진격했다.⁵²⁾ 일본정부는 8월 1일에 청국에 선전포고하면서, ‘사실상(de facto) 전시 상태이므로 열강의 거중조정(good offices)을 받아들이지 않겠으며, 청군이 특정 지역, 특히 평양에 위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⁵³⁾ 김벌리외상이 제의한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의 광서제(光緒帝)도 대일 전쟁을 공식 선언하며, 전쟁의 목적이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물리쳐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지키기 위한 데 있다고 밝혔다.⁵⁴⁾ 청국의 전쟁 목적은 기존의 ‘종번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었다. 두 나라 모두 한반도를 장악하는데 전쟁 목적을 두었지만, ‘조선의 독립’에 대한 시각차는 이처럼 뚜렷했다.

7월 중순, 선철병, 공동 조선내정개혁,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등의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청일 양군은 한반도에 계속 병력을 늘려 파견하였다.⁵⁵⁾ 청병을 실은 영국 상선 코우싱 호가 타쿠

52) No.214, Inclosure in No.214, Vice-Admiral Sir E.Fremantle to Admiralty, 1894.8.1, Inclosure in No.214, *BDA*, pp.96-97.

53) No.225, Phipps to Kimberley, 1894.8.1, *BDA*, p.100.

54) 김현철, 「청일전쟁」,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연세대 출판부, 2006), pp.133-134; F.O. No.432, O'Conor to Kimberley, 1894.8.2, Inclosure in No.432, *BDA*, pp.281-282.

55) No.105, O'Conor to Kimberley, 1894.7.17, *BDA*, pp.52-53; No.110.Kimberley

(大沽)항을 출발한 7월 23일에 일본군은 경복궁을 기습 점령했다.⁵⁶⁾ 이어 일본군은 아산만 풍도 근방에서 코우싱 호를 침몰시킨(7.25)뒤, 아산만 성환전투에서 승리했다(7.29). 청일전쟁은 사실상 선전포고 전에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었다.

7월 24일에 오오토리공사는 고종에게 청국과의 기존의 조약을 폐기하고, 아산에서 청군 축출을 요구하며,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청의 속국인지 여부를 조선에 직접 물은 것이다.⁵⁷⁾ 오오토리 공사는 청국의 대한중주권 문제를 빙자하여 청일개전을 일으킬 술책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무츠외상에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⁵⁸⁾ 오오토리공사가 조선에 내정개혁안을 전달하였을 때, 조선측은 ‘선철병 후개혁’으로 맞섰다.⁵⁹⁾

고종으로부터 청군 축출의 권한을 부여받은(7.25) 오오토리공사는 ‘일련의 전쟁 행위가 있었지만(굵은 글씨-필자),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의도도 없다’는 서한을 열강의 외교관들에게 발송했다.⁶⁰⁾ 이는 ‘조선의 독립’을 명분으로 일본군이 선전포고 전에 전쟁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문건이다. 일본군은 내정개혁안과 한일조약을 강요하며 한 달여 뒤인 8월 25일 정오

to Paget, 1894.7.18, *BDA*, p.54.

56) 노스차이나 헤럴드(North China Herald)지 1894년 8월 3일자에 따르면, 경복궁 점령은 5분 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57) 『蹇蹇錄』, p.110.

58) 『蹇蹇錄』, p.110.

59) No.496, Inclosure in No.496, 1894.8.23., *BDA*, pp.353-355. 경복궁 안에는 칼과 리볼버권총으로 무장한 일본 경찰병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일본군은 언제든지 궁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궁 주변 가까이에 주둔했다(F.O.405, Confidential 6605, No.135 Mr.O'Conor to Kimberley, 1894.9.3, Inclosure 1 in No.135 Gardner to Mr. O'Conor, 1894.8.27).

60) F.O. 405 Confidential 6605, Mr.O'Conor to the Earl of Kimberly, 1894.8.9, Inclosure 2 in No.3 Mr.Otori to his Colleagues, Jul., 1894; *N(ational) A(rchives)*, Despatches from US Ministers to Japan, roll.64, no.133, Sill to Dun, Jul., 26, 1894, No.133, Dun to Gresham, Aug., 4, 1894.

에 궁궐에서 철수했다.⁶¹⁾

일본이 연이어 한반도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영국은 불개입(7.30), 중립(8.2), 엄정중립(8.3)을 표명했다. 영국이 불개입을 표명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쟁에 개입할지 모르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는데 있다. 이것이 영국사가들이 주장하는 청일전쟁기 영국의 불개입정책의 ‘신화’이다.⁶²⁾ 킴벌리 외상의 로즈버리(Earl of Rosebery) 수상에 대한 보고문에는 영국의 불개입에 대한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현 상황에서 개입은 곧 무장중재의 형식이어야 한다(굵은 글씨- 필자)... 이는 침략자인 일본을 겨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려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 ...러시아와 공동으로 압력을 가한다면, 일본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열강도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럴 경우, 러시아와 우리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모른다...이 전망은 매우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가 적극적인 개입만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청국과 일본 두 나라만 약의 세력이 되도록 내버려두고 싶다.’⁶³⁾

61) F.O.405, Confidential 6605, No.135 Mr.O'Conor to Kimberley, Sept., 3, 1894. Inclosure 4 in No.135. Precise of Treaty between Japan and Corea, Aug., 26, 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130 Mr.O'Conor to Kimberley, Aug., 25, 1894, Inclosure 1 in No.130 Gardiner to Mr.O'Conor, Seoul, Aug., 17, 1894.

62) 영국의 ‘불개입’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 참조. 러불동맹의 해군력이 전쟁을 틈타 아시아로 진출하여 영국의 제해권을 침해할까 두려워 단독 개입을 꺼렸으며, 결국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본 베리만의 연구(P.J.Berryman, *British Naval Policy and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Julian Corbett Prize Essay, 1968), 당시 로즈베리수상과 킴벌리외상은 개입하려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 전 세계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우려하여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는 영국 내각의 분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니시(Ian Nish)의 연구, 그리고 영국이 실제로 전쟁에 말려들 각오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일본과의 결합을 정당화할 만큼, 아시아에서의 영국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닐슨(Keith Neilson)의 연구 등이다.

한반도에서 영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기를 꺼린다는 김벌리외상의 이 같은 의견에 로즈버리 수상 역시 동조했다. 그러므로 영국이 표방한 중립이란 당시 로이터지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일본에 ‘호의적인(benevolent)’ 중립이었다.⁶⁴⁾ 미국(8.28),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부도 중립을 표방했다.⁶⁵⁾

러시아 역시 중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차 러시아 특별각료회의(8.21)는 ‘청일전쟁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립에 관해 특별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며.....‘조선의 현상(Status Quo)’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및 타 열강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협력한다’고 결정했다.⁶⁶⁾ 이 때 러시아가 의미하는 ‘조선의 현상’이란 1888년의 조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입장, 즉 러시아는 결코 한반도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표방한 정책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현상 유지, 즉 청국 편에 선 것이며, 더욱이 영국이 중립을 선포한 상황에서 조선에서의 러시아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한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평양전투에서 일본의 오시마(大島義昌) 장군 분대는 식량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9월 14일 새벽 3시경 공격을 개시하였고, 청군은 오후 3시에 정전기를 계양했다. 청군은 다음 날인 9월 15일 일요일 아침에 항복했지만, 평양전투는 사실상 12시간 만에 끝났다.⁶⁷⁾ 일

63) Kimberley to Rosebery, 1894.7.30, Rosebery Papers 68, Keith Neilson, ‘Britain, Russia and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5 in Its International Dimension*,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s and Related Disciplin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994). Discussion Paper.

64) F.O.405, No.407, O’Conor to Kimberley, Oct., 15, 1894. Inclosure in No.407, Reuter’s Telegram, Sep., 25, 1894.

65) No.520, Trench(Tokyo) to Kimberley, 1894.9.1, BDA, p.371.

66) *Krasny Arkhiv*, T.3(52), Pervui Shagi Russokogo Imperializma na Dalnem Vostoke, 1932, C.62-67.

본은 이틀 뒤 황해(서해)해전(9.17)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네 차례의 전쟁(풍도해전,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서해)해전)에서 모두 압승, 육해상 모두를 제패했다.

리홍장은, 황해해전에서 패한 지 이틀 뒤에 전쟁 목표를 ‘자국 영토 수호’로 하향 조정했다(9.19).⁶⁸⁾청군의 전력이 일본에 비해 뒤쳐지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지만,⁶⁹⁾최신식 소총과 서구의 근대적 지휘체계를 갖춘 일본군에 비해 청군의 육해군 전력은 근대전쟁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북양함대가 창설되었으나 1890년대 이후 거의 예산 편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⁷⁰⁾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국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리홍장은 황해해전에서 패한 이후 ‘조선의 독립’을 기초로 <청국의 대일 배상금 액수를 열강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주선>해줄 것을 열강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리홍장이 황해해전에서 패한 이후 조선과의 ‘중번’관계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¹⁾ 그러나 이 때 리홍장이 제의한 ‘조선의 독립’이란 일본의 수중에 한반도가 장악되는 것을 열강의 개입으로 막고자 한 의미에서의 ‘조선의 독립’이었다. ‘중번’관계의 포기를 의미한 것으로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11월에도 리홍장과 총리아문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영, 미, 러 등 각국에 <조선의 독립>을 기초로 <청국의 대일 배상금 액수를 열강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강화를 주

67) F.O. No.420, O'Conor to Kimberley, Oct., 26, 1894, Inclosure 3 in No.420.

68) 강문호, 「李鴻章, 伊藤博文과 19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동학연구』 제26집, 2009, p.100.

69) Allen Fung, Testing the Self-Strengthening: The Chinese Army in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Modern Asian Studies*, 30, 4(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70) 김현철, pp.127-28.

71) 강문호, p.100.

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⁷²⁾ 청국은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여전히 열강을 통해 막으려 한 것이다.

‘조선의 독립’에 관한 청국의 이이제이 입장에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허용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확고한 정책이 가세되어 있었다. <노스차이나 해럴드 North China Herald>지 9월 28일자 기사는, 청국이 한반도에서 청국이 패한 이후 러시아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막기 위해 유럽이 개입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떼라, 러시아의 입장은 확고하다(Hands off, Russia is firm)’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청국과 러시아의 공감대를 재확인 해준다. <루스키에 베다마스찌 Russkie Vedomosti>지는 9월 24일자 기사에서, ‘조선 및 청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승리가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중요한 문제’라며 우려했다.⁷³⁾

그런가 하면, <아시아 쿼터리 리뷰 Asiatic Quarterly Review>지는 ‘조선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 보장(An International Guarantee of Korean Independence)’이라는 기사에서 ‘조선 문제는 영 제국의 상업과 교역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 제국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이해관계(paramount interest)의 문제’라고 강조했다.⁷⁴⁾ 영국과 러시아 모두 ‘조선의 독립’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양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오오토리공사는 조선 해관 재조정, 경인선 부설권, 제물포의 일본 거류지 확대 등 이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무츠외상은 오오토리의 조선 내정개혁안을 기초로 대한(對韓)

72) F.O.405, Confidential 6605, No.330,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Nov., 14, 1894.

73) Ales Skrivan, Sr.-Ales Skrivan, Jr., Great Powers and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Prague Papers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2(2015), p.22.

74) *North China Herald*, 1894.11.16.

강경책을 제시했다. 오오토리공사를 소환하고, 당시 내무대신이자 파격적인 거물급 정치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주한공사로 임명된 것이다(10월 26일 서울 도착).

이노우에는 ‘젠로(元老)’의 일원으로서 격이 낮은 주한공사를 자청하여 조선문제에 관한 ‘전결권(專決權)’을 가지고 부임했다.⁷⁵⁾ 10월 15일자 <재팬 메일 Japan Mail>은 이노우에의 파격적인 임명과 포부를 대서특필했다. ‘조선의 내정 개혁과 봉당, 왕실 음모 등을 개선하여 조선의 진보와 쇄신에 기여할 것’⁷⁶⁾이 이노우에의 포부라는 것이다. 영국의 힐리어(Walter C. Hillier) 서울 총영사의 본국 보고에 따르면, 이노우에는 전임 오오토리공사보다 훨씬 가혹하고 단호한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⁷⁷⁾ 한반도에서 압승을 거둔 뒤에, 조선의 내정개혁에 초점을 맞춘 거물급 이노우에가 주한공사로 부임한 것은, 일본의 청일전쟁 목적을 ‘조선의 내정개혁’, ‘조선의 독립’ ‘중번’ 철폐 등의 논점으로 확대 재생산시킨 요인이다.

미국, 러시아, 영국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했다. 따라서 열강은 청국이 제의한 <조선의 독립> 보장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국이 의미하는 <조선의 독립>이 종주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든,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의미한 것이든, 열강이 ‘조선의 독립’문제에 무관심했음을 의미한다.

영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이 열강의 상호 견제하에 있는 한, 오로지 현상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영국은 이를 위해 열강의 <공동개입>과 청일 양군의 <한반도 공동 점령> 및 <보호령>을 제의했으나 열강의 미미한 반응과 일본의 개전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났다.

75) 최문형, 『명성황후시해의 진실을 밝힌다』(지식산업사, 2002).

76) F.O.405, Confidential 6605, Inclosure in No.351.

77) No. 455, Inclosure I in No.455, Consul-General Hillier(Seoul) to Kimberley, 1894.11.8. Inclosure 1 in No.455, BDA, pp.454-456.

근본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할 일본의 힘이 필요했던 영국의 정책은, 러시아와 공동 행동을 취하는 한, 무장 개입할 필요도, 일본을 지지할 필요도 전혀 없었던 점에서 ‘불개입 정책’이었다.

5. 중국 본토로의 전선확대와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independence of Korea guaranteed by Powers)’

한반도의 육·해상을 장악한 일본은 9월 21일 곧바로 대륙 침략을 결정했다. 일본군은 궁극적으로 베이징(北京) 장악을 대륙 침략의 목표로 하되, 우선적으로 뤼순(旅順)과 웨이하이웨이(威海衛)를 공략하는데 집중하였다.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출발한 일본군 제2군은 뤼순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2만 명의 청국인을 살육한 ‘뤼순대학살’을 자행했다(11.20-21). 뤼순공략을 축하하는 파티가 12월 9일에 도쿄에서 열린 것으로 보아, 1894년 말 일본은 승전국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⁷⁸⁾

리홍장은 전선이 중국대륙으로 확대된 10월 초에 일본과의 강화를 고려했다. 평화 교섭 조건으로 <청국의 대한(對韓) 종주권 철회>, <배상금 지불>을 제시했다.⁷⁹⁾ 이 때 청국이 제기한 <청국의 종주권 철회>란 ‘조선의 독립’이 아닌 종번관계의 철폐였다. 즉 종주권은 철회하되, 조선이 일본에 독점되는 것은 여전히 열강의 보장하에 막으려는 것이었다. 당시 리홍장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지

78) F.O. 405, Confidential 6605, No.156, Mr.Trench to Kimberley, Tokio, Sept., 1894.

79) F.O. 405, No.405, O'Conor to Kimberley, Oct., 10, 1894.

않는 것'이 강화의 제일 첫째 조건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당시 덴비(Charles Denby)주청 미 영사관 서기관(Legation Secretary)에 의해 정확하게 간파되었다. 덴비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바로 이 점이 전쟁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자국 정부에 보고했다.⁸⁰⁾

열강 역시 일본군이 청국 대륙에 상륙한 9월 말 이후 전황에 촉각을 기울이며 개입하거나 강화를 주선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대륙으로 전선이 확대되자 영국과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둘러싼 청국과 일본 그리고 열강 사이의 의견차가 드러났다.

전쟁이 중국 본토로 확대된 상황에서 김벌리외상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군이 베이징까지 진군하게 될 경우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럴 경우 영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일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개입할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러시아의 기르스 외상이 '영국과 러시아가 '협의하여(consult)' 타열강과 함께 가능한 행동을 취하자'고 했지만, 당시 러일협약의 루머는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경계심을 자극한 듯하다.⁸¹⁾

김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되었다. 김벌리외상은 영·러·독·불·이·미 등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청국의 대일 배상금 지불>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청일에 개입할 것을 열강에 제의했다.⁸²⁾ 전쟁이 청국 대륙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전하여 일본의 독식을 막는 대신, 청으로 하여금 대일 배상금을 지불케 한다는 것이었다.

80) No.102, O'Conor to Kimberley, 1894.10.4. BDA, p.387.

81) F.O.405, Confidential 6605, No.158, Mr. Trench to Kimberley, Tokio, Sept.,13,1894.

82) F.O.405, Confidential 6605, No.56.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hipps(E.C.H), Oct., 6, 1894, No.58. Kimberley to Mr. O'Conor, Oct., 6, 1894.

다시 말해 김벌리외상이 제의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이란 청·일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해 열강이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트렌치(P.Le Pore Trench)동경주재 영국공사가 1894년 10월 초 무츠외상을 만나고 난 뒤 김벌리 외상에게 보낸 극비서한에 따르면, 일본이 원하는 것은 조선에서의 프리헨드(자유재량권)이며, 조선을 보호령(Protectorate), 또는 일본의 속국(suzerain)으로 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었다.⁸³⁾ 김벌리외상이 생각한 ‘조선의 독립’이 궁극적으로 무력을 통해서라도 조선을 러시아의 예측화로부터 막는 것이었다⁸⁴⁾는 것이지만,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안은 청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영국이 의미하는 ‘조선의 독립’은 일본이 목표한 ‘조선의 독립’과 그 의미가 달랐다. 그리고 리홍장이 제의했던 ‘조선의 독립’과 분명히 달랐으며, 러시아가 생각하는 ‘조선의 독립’과도 달랐다.⁸⁵⁾

김벌리외상의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청국의 대일 배상금 지불〉안에 대해 아오키 공사가 열강의 공동 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도 이 때문이다.⁸⁶⁾ 청일전쟁 이전부터 영·독 양국에 공사로 주재했고, 김벌리외상과 통상조약 개정을 이뤄낸 베테랑 외교관인 아오키에 따르면, ‘일본은 아직 청국이 패했다고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국이 그렇게 인지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은 ‘만족할만한 교섭 결과를 가져 올만큼

83) F.O.405, Confidential 6605, No.266, Mr. Trench to Kimberley, Tokio, Oct., 11, 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266,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Nov.,9, 1894.

84) Kimberley to Rosebery, 1894.11.8. Rosebery Papers 69, Ian Nish(1), 위의 논문, p.229.

85) No.122, F.Lascelles to Kimberley, 1894.10.14, BDA, p.388.

86) F.O.405 Confidential 6605 No.169, Mr. Gosselin to Kimberley, Berlin, Oct.,16, 1894.

아직 청과의 전쟁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며⁸⁷⁾ 청국으로부터 압도적 승리를 확보하기 전까지 강화는 없다는 뜻이었다.

일본의 이토수상과 무츠외상은 킴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첫째, 청국이 ‘조선의 독립’을 확인케 하고,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담보로 뤄순(旅順) 다이렌(大連)을 할양케 한다. 둘째, 청국이 배상금을 지불토록 한다는 것이다.⁸⁸⁾ 즉 일본은 청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을 확인케 하여 한반도를 독점하고(보호령 또는 종속국으로), 중국 본토에서의 승리로 타이완 등 영토 할양과 배상금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⁸⁹⁾ 청일전쟁의 결말이 킴벌리의 10월 6일의 중재안을 계기로 결국 이토와 무츠의 안으로 귀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중재안은 개전 이전부터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일본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과 청국,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조선의 독립’의 의미는 다 달랐다. 이는 킴벌리외상의 10월 6일의 중재안에 대한 열강의 반응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청국은 일본의 한반도 병합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한다면서도,⁹⁰⁾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강화 협상의 기초로서 <대일 배상금 지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⁹¹⁾ 청국이 내세운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이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을 열강의 보장으로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킴벌리외상이 구상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즉 모든 열강의 한반도 독점 배제하려는 의미와 달랐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청국은 1894년 11월까지도 대한(對韓) 종주권을 철회하

87) F.O.405, No.389, 1894.10.26. Inclosure in No.389.

88) 『蹇蹇錄』, pp.170-171.

89) No.266, Trench(P.Le Poer) to Kimberley, 1894.10.11, BDA, pp.415-416.

90) No.102, O'Conor to Kimberley, 1894.10.10, BDA, p.387.

91) F.O.405 Confidential 6605 No.146, Mr. O'Conor to Kimberley, Peking, Oct., 14, 1894.

되,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즉 일본의 독점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이 ‘중변’문제와 ‘조선의 독립’문제를 한반도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시했다면, 청국은 ‘중변’문제와 ‘조선의 독립’문제를 별개로 생각한 것이다. 결국, ‘조선의 독립’ 문제를 놓고 청일이 전쟁 종반까지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김벌리외상은 열강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노또 프랑스외상은 ‘조선의 독립’을 확보하려는 목표만으로는 개입의 조건이 충분치 않다는 면에서 반대했다.⁹²⁾ 독일정부는, 육상과 해상에서의 전쟁의 결과가 개입하기에는 아직 불확실하며, 전비배상금은 현재 승승장구하는 일본을 만족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⁹³⁾

미국의 그레삼 국무장관은 공동개입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조속히 종결되기 원하며, ‘조선에 모욕이 되지 않게(not humiliating to Korea)’ 종결되기를 원한다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의중을 들어 공동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⁹⁴⁾ ‘어떤 형태의 공동 개입’도 거절하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엄정 중립(Impartial Neutrality)을 표방한 것이다. 이는 ‘외국과의 동맹이나, 먼 곳에 있는 국가들의 독립 보장에 참가하는 당혹스러운 일을 피하는 현명한 정책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은 미국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것’⁹⁵⁾이었다.

러시아 기르스 외상은 영국의 제의를 원칙상 수용하여 황제에게

92) F.O.405 Confidential 6605, Mr.Phipps to Kimberley, Paris, No.91, Oct., 1894.

93) F.O.405 Confidential 6605 No.144, Sir E. Malet to Kimberley, Berlin, Oct., 12,1894; F.O.405 Confidential 6605 No.148, Kimberley to O’Conor, Oct.,15, 1894; No.176, Kimberley to Sir F. Lascelles, Oct.,19, 1894.

94) No.58, Gresham to Goshen(British Minister of the US), 1894.10.12, *PAFR*, p.1057.

95) No.383, Goschen to Kimberley, 1894.11.12, *PAFR*, p.432.

상주한 뒤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나 알렉산드르3세 황제의 건강이 악화되어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결국엔 보류를 통보해왔다.⁹⁶⁾ 기르스외상은 스파알(Egor Egorovich Staal)주영 러시아대사에게 훈령하기를, 청일 양국이 전쟁을 즉각 중지하고, 일본군이 묵덴(奉天省)에서 철수하길 희망하며, 조선은 ‘독립국’으로,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에 청국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⁹⁷⁾ 러시아의 입장은 여전히 ‘조선의 독립’과 ‘배상금 지불’을 주장하는 청국 편에서 있었던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개입 반대에 직면한 김벌리외상은 단독으로 일본에 접근하여 중재를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를 낼 만큼 사태가 충분히 전개되지 않았으며, 지금의 상황에서 강화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영국의 중재 제의를 거부했다(10.23). ‘조선의 독립’문제에 관한 한, 더 큰 틀에서 러시아를 의식하고 있던 영국의 속내가 근본적으로 일본과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더 이상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은, 일본을 제지할 힘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시아 견제 역할을 맡아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벌리외상은 한 달 뒤인 11월 6일에도 열강에 공동 행동을 제의했지만, 역시 미온적인 반응밖에 얻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공동개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은 영국이 생각하는 개입이 곧 무장개입이고, 일본을 적극 저지하는 개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 역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동의한다면 개입에 가담하겠다⁹⁸⁾고 함으로써 김벌리의 10월과 11월의 열강에 의

96) F.O.405 Confidential 6605 No.164, Sir F. Lascelles to Kimberley, St. Petersburg, Oct., 17,1894; no.176. Kimberley to Sir F. Lascelles, Foreign Office, Oct., 19, 1894.

97) F.O.405, No.449, O'Conor to Kimberley, Nov., 4, 1894. Inclosure in No.449.

98) F.O. 65/1474, Kimberley to Lascelles, telegram 91, Nov., 9, 1894.

한 〈공동 개입〉 제안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김벌리외상의 중재 제의에 며칠 앞선 11월 3일에 청국 총리아문은 5개 열강(미, 영, 러, 독, 프)의 외교대표부를 초치한 후 중재를 요청했다. 청국은 특히 미국에 직접 중재를 호소했지만, 미국은 ‘열강에 대한 청국의 제의가 자국의 행동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그레삼국무장관은 ‘배상금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만 열강과 공동으로 행동하겠다’고 표명했다(11.6).

김벌리 외상의 중재안이 모두 실패한 이후, 강화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던(Dun)주일 미국공사는 무츠 외상에게 강화시 미국의 우의적인 중재를 제안했다(11.6).⁹⁹⁾ 구리노(栗野慎一郎) 주미일본공사 역시 무츠외상에게, ‘미국은 영국이 개입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단독 개입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11.8). 일본이 이후 유럽 열강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닌, 청국으로부터 직접 강화제의를 받겠다며, 앞으로 주청주일 미국공사를 통해 일본에 접근하라고 일갈한 것도 이 때문이다(11.17).¹⁰⁰⁾ 이것이 강화교섭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모든 의견교환이 베이징과 동경주재 미국공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이유이다. 그레삼은 클리브랜드(Grover Cleveland) 대통령의 청일 양국의 중재 의사¹⁰¹⁾를 덴비공사와, 워싱턴의 청국공사(楊儒)에게 전달했다(11.19).

일본이 ‘뤼순 대학살’을 자행한 11월 21일에 청국은 베이징(텐비)과 동경(던)의 미 공사들을 통해 무츠외상에게 두 가지 강화조건을 전달했다. ‘조선의 독립’ 승인, 둘째 ‘배상금 변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국의 ‘조선의 독립’ 승인 제안에 대해 ‘가장 값싼 강화조건’이라고 폄하했다.¹⁰²⁾ 일본의 야욕이 한반도 독점을 넘어 중국

99) 『蹇蹇錄』, pp.178-79.

100) No.69, Denby to Gresham, 1894.11.10, *PAFR*, pp.1063-1064 ; No. 73, Dun to Gresham,, 1894.11.17, *PAFR*, pp.1064-1066.

101) No.77, Gresham to Denby, 1894.11.19, *PAFR*, p.1066.

본토로까지 이미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895년에 들어 산둥(山東)반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가 일본군에 함락되고(2.2), 북양함대 제독(丁汝昌)이 투항, 자살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판가름이 났다. 히로시마에서 전권대표들이 두 차례 만났으나(2.1), 일본이 청국의 전권대표와 협상대표단에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휴전 예비교섭은 실패로 끝났다. 덴비는 ‘청국은 여전히 열강이 개입해서 청국을 폐허에서 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6). 심지어 광서제는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덴비에게 지령하라고 부탁했다. 이는 청측이 여전히 ‘조선의 독립’ 문제에 대한 열강의 중재에 의존하여 일본의 한반도 독점을 막으려 하였으며, 중미조약(1858)의 조항에 따라 미국이 중재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전통적인 ‘이이제이’와 ‘조선의 독립’에 대한 청측의 모호한 태도가 일본의 대륙 침략 야욕과 맞물림으로써 강화가 더욱 지연된 것이다.

러시아가 영국을 견제하면서도 1894년 내내 영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데는 명확한 대외정책을 표방할 수 없었던 내부 사정이 있었다.¹⁰³⁾ 알렉산드르 3세 황제의 서거(1894.11.1)와 기르스 외상이 사망(1895.1.26)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1895년 1월에 열강에 중재를 제의하게 된 것은 일본의 압도적 승리가 가져올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변화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노보예 브레마 Novoe Vremya〉지는 ‘일본의 승리로 조선이 제2의 터키가 되어 일본이나 유럽의 보호하에 들어가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일년에 4-5개월이 어는 블라디보스토크 외에는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영흥만이나 다른 부동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⁴⁾

102) 『蹇蹇錄』, pp.180-182.

103) F.O.405, No.414, Sir Lascelles to Kimberley, Dec., 5, 1894.

104) No.85, F. Lascelles(St.Petersburg) to Kimberley, 1895.1.31, Inclosure in

러시아는 1895년 1월 중순 청국 협상단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조 기 강화에 대한 영국측의 견해를 문의했다.¹⁰⁵⁾ 김벌리외상과 로즈버 리수상은 러시아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데 동의했다. 로바노프 (A.B.Lobanov) 러시아 신임 외상이 영국과 협의하며 개입할 태도를 보이자, 무츠외상은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의 제 안을 거부했다. 겐로의 일원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가 무츠 외상에게 후일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자국의 이해(利害)에 반하 는 어떤 계획에도 영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¹⁰⁶⁾

2월말에, 스파알 주영 러시아대사는 ‘조선의 독립’에 대해 영국 정부가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지를 자국 정부가 “특별히 알고 싶어한다’고 김벌리외상에게 문의했다. 로바노프외상은 라셀(F.C. Lascelles) 주러 영국대사와의 대화에서, 러시아는 영·러 두 나라 의 공동 행동을 원하는 김벌리외상의 견해에 동의하며, 동아시아에 서 영토적 야욕이 없으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피력하였 다.¹⁰⁷⁾ 로바노프외상의 제의에 대해 김벌리외상 역시 ‘조선의 독립’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다.¹⁰⁸⁾ 일본의 승리로 ‘조선의 독립’을 침해받지 않는 것이 (서로 다른 의미에서) 영·러 양국의 이해에 무 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두 나라가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2월 말까지 이어졌던 영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완전히 깨진 것은 4월 4일 일 본의 강화안이 청국에 전달되면서였다.

No.85, 1895.1.17(29), BDA, p.479.

105) F.O.65/1494, Lascelles to Kimberley, telegram 5, Jan., 23, 1895,

106) Ian Nish(2), 'Japanese Diplomats and the Sino-Japanese War,' *The Sino-Japanese War of 1894-5 in Its International Dimension* (Suntory-Toyota International Centre for Economics and Related Disciplines, 1994), p.63.

107) F.O.65/1490, Kimberley to Lascelles, despatches 54A, Feb., 27, 1895; Neilson, pp.6-7.

108) F.O.65/1490, Kimberley to Lascelles, despatches 56, Mar. 13, 1895; No.143, Kimberley to Lascelles, 1895.2.27, BDA, pp.491-492.

일본측 강화안에 랴오둥반도를 차지하겠다는 안이 들어가자 ‘조선의 독립’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은 즉각적으로 돌변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이 ‘베이징과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¹⁰⁹⁾ 일본의 요동반도 획득이 청국과 조선의 독립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는 러시아의 대일(對日)삼국간섭이 임박했음을 말해준다. 제3차 러시아 특별각료회의(4. 11)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입장에 대한 영국의 어떤 지지도 이제 러시아에 대립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6. 맺음말

이상으로 청일전쟁의 전황에 따라 ‘조선의 독립’문제에 대한 청일 양국과 열강의 정책이 연동하였고, 결국 ‘조선의 독립’을 담보로 전쟁이 장기화된 측면이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승전을 거듭한 일본은 청의 대한 종주권 포기,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목표로했으므로 열강의 어떤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청국은 전쟁기 내내 ‘대한 종주권’과 ‘조선의 독립’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며, 열강의 중재에 기대어 한반도가 전적으로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했다.

영국, 러시아, 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담보로 각각의 자국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느라 <공동 개입> 및 중재에 실패하였다. 미국은 장차 만주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연대에 의존한 ‘조선의 독립과 주권 존중’을 표방했고, 영·러와의 경쟁을 의식하여 ‘공동 개입’에 가담하지 않았다. 영국이 일본 편에서 불개

109) No.30, Lascelles to Kimberley, 1895.4.5, BDA, pp.511-512.

입을, 러시아가 청국 편에서 불개입을 유지한 것은, 영·러 두 나라가 서로 상대측이 개입하거나 전쟁을 계기로 세력 확장을 꾀할지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철도가 완공되기 이전에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분규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영국의 개입을 의식하면서도 일본의 한반도 장악을 막기 위해 청국 편에서 중재했다.

결과적으로 ‘불개입’정책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중재안들은 ‘조선의 독립’을 한층 위협했다. 김벌리외상의 열강에 의한 <공동개입>안은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방지하고, ‘무장 개입’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중립과 ‘불개입’이었다. 청일 양군에 의한 <한반도 공동점령> 및 <보호령>안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큰 틀에서 나왔지만, 영·일 ‘불평등 조약’ 개정과 함께 결과적으로 일본에 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셈이 되었다. 전쟁이 중국 본토로 전선이 확산된 10월 초 이래 제기된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안은 청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독점을 모두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일전쟁기 영국과 러시아는 로즈베리수상의 장기적인 와병, 러시아 알렉산드르황제의 서거(1894.11.1)와 기르스외상의 와병과 사망(1895.1.21)이라는 두 나라의 내부 사정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적 승리가 자국의 동아시아 이해를 거스른다고 판단한 순간,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적극 개입 즉 삼국간섭에 나서게 된다. ‘조선의 독립’문제를 둘러싼 청일전쟁의 국제관계가 향후 영러의 대립 나아가 러일전쟁으로의 길을 예시한 셈이다.

[원고투고일: 2017.1.15, 심사수정일: 2017.2.19, 게재확정일: 2017.2.20.]

주제어 : 청일전쟁, 조선의 독립, 불개입, 열강의 공동 개입, 한반도 공동 점령, 보호령, 열강이 보장하는 조선의 독립, 거중조정, 무장 개입, 호의적 중립

<ABSTRACT>

Surrounding Great Power's Policies on the 'Independent issue of Korea' with Relation to the Sino-Japanese War

Seok, Hua-Jeong

The study focuses on the 'independent issue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under the situa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During the War, 'the independence of Korea', regardles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s an independent nation, was under the restrictions of the structure of strategic interest for the Great Powers including Japan and China. Japan's exclusive ambi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which pretended to be 'independence of Korea', consistently revealed during the war period. China, on the other hand, wanted to prevent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falling into the hands of the Japanese as a whole, leaning on the intervention of the Powers. The ambiguous attitudes of China between 'independence of Korea' and suzerainty were one of the major factors in prolonging the war and delaying the peace negotiations.

Of the Powers with concerns in East Asia, the United States hoped to use Japan to terminate China's suzerainty over Korea, open the door to Chinese trade and investment and weaken the influence of Britain and Russia in East Asia. Britain and Russia also checked each other because the partner country might try to expand its power alone in the Korean Peninsula. British Lord Kimberley's 'common intervention' by the powers was a way to prevent Russian monopo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void 'armed intervention'. His proposals of 'joint occupation of Korea' and 'separate Protection' by China and Japan came from a large frame to control Russia, but as a result, it became a guideline to Japan to open the war. Since the beginning of October in 1894, when the war spread to mainland China, Kimberley's proposal, 'independence of Korea guaranteed by the Powers', was intended to exclude any power's monopol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victorious Japan. Russia also hoped to prevent the subjugation of Korea by any power and adopt a wait-and-see policy at leas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Trans-Siberian Railway. But as soon as Japan's crucial victory threatened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of China', Russia will be involved actively the issue through the Triple Intervention in April 1895.

Key words : The Sino-Japanese War, independence of Korea , non-intervention, common intervention by the powers, joint occupation of Korea, separate Protectorate, good offices, armed intervention, independence of Korea guaranteed by the Powers, benevolent Neutrality

